

윤정부, 광주·전남 내년 공약 예산 '짚김'

국가균형위 지역공약 토론회 광주 453억·전남 668억 반영 시·도, 정부 관심·지원 촉구

윤석열 정부가 광주·전남에 약속한 공약 가운데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각각 6개 사업에 453억원, 11개 사업에 66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균형위는 광주시, 전남도와 함께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지역 지역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현 균형위 전략기획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시·전남도·균형위 관계자들과 지역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전문가 주제발표 및 제안, 자유토론, 종합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정훈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공약 추진 현황 보고'를 통해 "지난 4월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광주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6개 사업, 453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특히 ▲광주·전남에 AI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국토부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AI중심도시 광주를 위한 2단계 사업 기획 등 1단계와 2단계 사업 병행 추진 ▲AI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AI 영재교 설립 등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을 건의했다.

시민 숙원사업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통과 및 대통령 임기 내 국가 주도 이전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주요 ▲광주 복합쇼핑몰이 문화관광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통·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과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윤석열 정부의 전남 공약 7개 분야 15개 정책 과제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공약 외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여건다루 수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광주시·전남도와 함께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지역 지역공약 토론회를 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우선 이전하고, 5조원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지원 제도 신설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

7개 분야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고층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광역 고속 교통망 확충 ▲광양항을 글로벌 스마트항만으로 조성 ▲무안국제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 ▲첨단의료 복합단지 및 푸드 바이오밸리 조성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 휴양벨트 구축 등으로,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라는 목표 달성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건설'을 위해서는 공약의 속도전 있는 추진이 절실하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세부적으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해남에 탄소중립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100%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전용산단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고층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는 나로우주센터 중심에 우주 항공산업과 연관 미래형 운송기기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다. 오는 2031년까지 우주발사체 제작·평가·인증을 비롯, 발사까지

원스톱으로 수행 가능한 우주산업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게 된다. 광역고속도로 확충을 위한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의 예타 면제와 광주~완도 2단계, 광주 3순환 고속도로의 5구간 건설을 위한 조속한 예타 통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대한 반영도 건의했다.

전남도는 또 광양항을 글로벌 스마트항만으로 만들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묘도 예코에너지 지보 조성사업의 경우 전국에서 탄소배출량이 많았던 여수·광양 산단에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상 파이프 연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항공특화산단, 항공정비, 물류산업 등과 연계한 첨단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추진중이다.

국립갯벌습지지원 조성, 완도·신안·진도 등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잇는 연륙·연도교 신설 계획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해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전남 공약 중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11개 사업에 668억원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속면효과 상추 '흑하랑' 제품 산업화 성공

전남농기원, 가공·생산 전문단지 조성·의약산업화 확장 방침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천연 소재로 속면 효과가 있는 기능성 상추 '흑하랑' 품종으로 수면건강제품을 산업화하는데 성공했다. 고도와 사업을 통해 향후 원료 가공과 제품 생산까지 가능한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의약 산업화까지 확장할 방침이다.

흑하랑 상추는 전남도농업기술원이 8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 2019년 등록을 마쳤으며, 정선 건강

과 수면 효과가 있는 락투신 성분이 3.74mg/g으로 일반 상추에 비해 124배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급성장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변화에 발맞춰 '흑하랑' 고도화를 위해 '도통 개량 흑하랑 상추 품종 개발과 전문 특화단지 조성', '민관협력 흑하랑 상추의 천연성분 이용 가공 제품화'에 힘써왔다.

2018년부터 현장실증·시범사업-정책사업을 통해 전문 재배단지를 육성해 왔으며, 현재 20여 농가가 참여해 재배 면적은 30ha, 생산량은 300t까지 증가했다.

흑하랑 상추는 기능성 프리미엄이 적용돼 일반상추 대비 1.5~8.5배 높은 단가로 거래되고 있으며 가공 원료화에 따른 일시수확으로 노동력을 25% 줄여줘 농가 고소득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흑하랑 품종을 활용, 지난 2017년 (주)휴롬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6개 업체와 민관협력 체계를 구성해 제품 개발을 추진한 결과 올해 19개의 다양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부부끼리 사는 노인, 자녀동거 노인보다 행복

행복지수 세계 59위...삶 만족도 30대 가장 높고 50~60대 낮아

부부끼리 사는 노인 가구가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가구나 혼자 사는 노인 가구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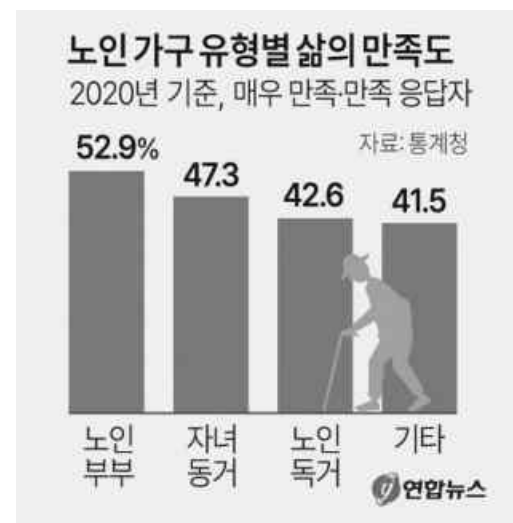
한국의 행복지수는 미국(16위), 일본(54)보다 낮은 세계 59위 수준이었다.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는 30대가 가장 높고 50~60대는 낮았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노인 가구 중 노인 부부가구가 자녀 동거가구보다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 건강, 자녀관계, 친구·지역사회 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2020년 조사에서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노인 부부가구가 52.9%, 자녀 동거가구가 47.3%, 노인 독거가구가 42.6%였다.

노인 부부가구 중 노후 생활비 마련을 '자녀'에게 의지하겠다는 응답 비중은 2011년 10.2%에서 2020년 4.2%로 줄었다. 자녀 동거가구(18.8→5.3%), 노인 독거가구(18.2→5.4%)도 마찬가지였다. 대신 '본인 스스로' 마련하거나 '본인과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겠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늘었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10점 만점)는 2013년 5.7점, 2018년 6.1점, 2021년 6.3점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높고, 노후 불안을 겪는 50대와 60대는 낮았다. 아동·청소년 만족도는 6.6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였다. 한국을 제외한 OECD 주요



국 평균은 7.6점이다.

지역별로 보면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지만 이후인 2020년과 2021년에는 도시 주민의 만족도가 더 높아졌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최근 3년 평균 5.94점(10점 만점)으로 세계 59위였다. 미국, 일본보다 낮은 순위다. 한국인의 심 활동은 '내 집'에서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쉬지 못하는 이유로 남성은 '경제적 부담'을, 여성은 '시간 부족'을 각각 가장 많이 꼽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 신규확진 8만6852명...3개월만에 최다

겨울 유행 증가세...광주·전남 5102명, 요양원 등 집단 감염

코로나19 겨울 유행이 증가세로 돌아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6852명 늘어 누적 2784만1001명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4일(9만 3949명) 이후 90일새 가장 높은 수치다. 주말 줄었던 진단 검사 건수가 평일 늘어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남(2만2667명)의 3.8배로 증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7만 7590명보다 9262명 늘었다.

이번 겨울 유행에서 신규 확진자 수 규모는 한동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주 초반부터는 다시 늘고 있다. 1주일 전 대비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8일째 증가세다. 2주 전인 지난달 29일(7만 1460명)과 비교하면 1만 5392명 늘었다.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4697명→6만 5245명→6만 2734명→

6만 2738명→5만 4319명→2만 5667명→8만 6852명으로, 일평균 6만 1750명을 기록했다. 직전 1주일(11월 30일~12월 6일)의 5만 3939명보다 7811명 많다.

정부는 이날 말까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최근 증가세는 이런 조치를 조기 실시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광주·전남도 이날 5102명이 신규 감염되는 등 3개월만에 5000명대를 넘어섰다. 5000명대 돌파는 지난 9월 14일 5276명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이날 0시 기준 광주는 234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대항해 사망자는 없었다. 광주에서는 동구와 광산구에 있는 요양원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됐다. 이날 2762명이 발생한 전남에서는 도내 22개 시·군 전체에서 두 자릿수 이상 확진자가 나왔다. 감염 취약시설 46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박진표 기자 bhj@kwangju.co.kr

싼, 임야, 삽니다
지분환영. 010-9582-7400

급매물건 삽니다
경매직전 물건
(주)오천.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급매” 법인까지 함께 인수.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391-3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1길 12-8)

대지 공장용지 12114.6 (3,665 평)
건물 1) 일반철골구조 판별지붕 단층공장 1,326 (400 평)
2) 일반철골구조 판별지붕 2층 사무실 234.6/234.6 (70/70평)

소유자 (주) 크로스지 - 2011년 설립, 제조업

채무액 현황
금융권 채무 33억8천만원 기타채무(1곳) 4억5천만원
시보조금 7억 (공장등록 5년후 소멸)

* 인수총액 39억8천만원
실인수금액 6억 (기타채무 4억5천 반환포함)

010-3812-1394, 070-7747-1399

토지 급매

광주광역시 남구 입암동 692(호천 1지구) 대지 683.4㎡ (207평)

- 근린생활시설용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2면 도로접(중로1류, 소로2류)
- 5층 건물 신축 가능(대형식당, 스크린 골프장, 커피숍 등 다양한 상가와 1주택 건축 가능)

매매가 : 18억 4천만원

010 - 3605 - 8564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박 김원희(00416-XXXXXX)
· 피유족 : 광주 남구 동림5리5번길 26(백운동)
피상속인 박 김원희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2년 단4135호로 신청하여 2022년 12월 1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12월 14일

- 상속인 : 1. 김은숙(70711-XXXXXX) 전남 광종군 부산면 용동길 38
- 2. 김진희(70207-XXXXXX) 광주 북구 동문대로180번길 32(부암동)
- 3. 김진희(82012-XXXXXX) 광주 남구 서문대로201번길 21, 209동 905호 (진월동, 한신2차아파트)
- 4. 김미남(830801-XXXXXX) 인천 중구 원바위로 34, 1012동 1002호 (문선동, 광종중스카이빌10단지아파트)
- 5. 김행희(860201-XXXXXX) 광주 동구 동해안로 3, 105호(동명동)

· 신고기간 : 2022. 12. 14. ~ 2023. 2. 23.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2. 김진희의 주소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본 조합은 2022년 12월 9일 조합원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며 본 조합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12월 14일
원용전 영농조합법인
광주 북구 용전마을길42번길 26-4(용전동)
청산인 김영식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